

과총창립30돌  
기념좌담회

# 5백만과학기술인 代辯役충실

## 과학인 아이디어 정책반영을 과학기술봉사단 활동 극대화

박택규 : 과총 창립 30주년을 회고하는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총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 과총의 어제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허심탄회하게 진단하며 나아가 활기찬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66년 「발명의 날」창립 결의

정조영 : 짧지 않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과총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험난한 고비도 겪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9월24일 창립30주년 기념일을 기해 그동안 과총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여러 선배님들에게 존경과 아울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가 과총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희망에 가득찬 내일을 설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



라며 아울러 새로운 제2의 탄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은웅 : 1966년 5월19일 「발명의 날」을 기하여 서울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朴正熙대통령 임석하에 열린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단의 창단과 동시에 농수산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과총과의 인연이 시작된 셈입니다. 각 도에 새마을기술봉사단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김윤기회장을 모시고 새마을지도부락인 아산지역에 다녀온 기억이 새롭군요.

김시중 : 이제 과총도 30년 성년을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회장 등 임원을 비롯하여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총이 이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책·재정 당당한 단체돼야

과총 30년의 업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한편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

24일에 서울 신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드디어 과총이 탄생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에 金允基박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선출되었지요.

저는 1972년 새마을기술봉사

### ● 참석자

- 金始中 <고려대교수>
- 李光榮 <과학평론가>
- 林瑢圭 <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위원>
- 朴贊謨 <포항공대교수>
- 李殷雄 <서울대명예교수>
-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 가나다순

### ● 사회/정리

- 朴澤奎 <건국대교수/본지편집위원장>

- ◆ 때 ... 1996년 9. 13. 14:00
- ◆ 곳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던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명실 공히 유기적이고 생명력있는 학술단체의 집합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수립·건의하거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과학기술인력이 증가하면서 과충이 해야 할 일, 역할도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창립 30주년을 기해서 정책적·재정적으로 보다 더 당당하고 무게가 있는 단체로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의 중복성을 피하고 전문성을 보다 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미과학과 공동 사업수행

박찬모 : 과충과 재미과학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이 창설된지 25주년이 되는데 종합학술대회 개최, 재외과학기술자 유치 등 그동안 과충이 주축이 된 사업에 재미과학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재미과학은 지난 1971년 12월에 워싱턴에서 재미과학기술자 69명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순경회장, 김호길간사장 그리고 제가 총무간사를 맡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최형섭과기처장관께서 3만달러의 지원금을 보내주셔서 총람을 편찬하는 등 모국의 과학기술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정하였어요.

1974년도에는 3백여명의 과학기술자와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상을 눈으로 보고 조국애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이 대회에 참가한 과학기술자들 중에는 고국에 돌아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이 사업은 그 후 계속 확대되어 유럽, 일본 그밖에 러시아, 중국 등에 재외과학이 결성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과충이 중심점이 되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과충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 전국민 과학화운동 큰 기여

임용규 : 저도 몇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980년도에 제가 과기처 진흥국장으로서 재임할 때만 해도 정부에서도 학술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충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당시 과기처 진흥국이 주관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과충의 중심적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과충의 지원학회수가 1980년도에 74개에서 1996년도에는 무려 2백51개로 증가하였으니 그동안 과충이 과학기술단체의 총연합체로서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한국과학기술회관 건립도 축하할 일이며 이제 과충은 새로운 각도에서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양적으로 이룬 것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과충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정부나 입법기관에 전파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에도 과학기술계인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학인 아이디어 정책 반영을

이광영 : 저는 1965년부터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과충 탄생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지켜봐 왔는데 돌이켜보면 과충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난 과충은 이제 그 역할을 재정립할 때라고 봅니다. 우선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학기술자들의 구심체로서 압력단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사회봉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 여러부문에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수용이 아직 취약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시행착오 등을 보게되는데 과충이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예측, 수정하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과충도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였으니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과충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과충은 바로 과학기술자들의 중지를 모아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데 그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대 국민홍보를 포함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도 앞장서야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과학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회원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통

로가 만들어지면 과총 자신의 힘도 기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은웅 : 저는 과총 발전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인의 신조」는 閔寬植회장 재임시 제정된 것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정신을 재조명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과학기술회관 건립은 부지확보, 건물신축에 따른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현대식 설비를 갖춘 회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과총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 셈입니다. 과총은 앞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일



▲ 이은웅 서울대명예교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임원들 無에서 有를 창조**

박택규 : 오늘의 과총이 있기까지에는 역대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학기술학술단체와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두 분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과연 과총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宣炳澤선생의 회고를 인용하면 『1966년 당시 무임소장관을 역임했던

김윤기초대회장께서 과학기술처에 요청해서 과총 산하단체인 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제정 이전에 과총총회석상에서 공로상, 기술상 등을 시상했는데 당시 제1회 수상자로 金東一고문께서 선정되었지요.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과학기술회관 건립(현재 본관)을 추진, 직접 청와대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브리핑도 하였지요.』

다음으로 2대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趙誠虎선생의 회고담을 인용하면 『초대 선병규사무총장이 1968년 한양대 공대로 옮겨가게 되면서 대한약사회장직을 맡고 있던 제가 처음 사무총장직을 맡고 보니 직원이라고는 총무과장, 「과학기술」지 겸 화보 발간하는 사람, 그리고 경리 등 모두 세명에 불과하고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자체회관 건립을 위한 노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대지를 구하는데만 5년이 걸렸는데 朴正熙 대통령의 지원지시와 梁鐸植서울특별시장과 崔鍾浣부시장의 협조를 얻어 대지를 구했지요. 부지구입 후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저는 골조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과총의 재정이 빈약하고 사무처 기능도 매우 약했지만 과총이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큰 소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회관에 神의 도움**

정조영 : 저도 15년간 과총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과총이 왜 탄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도수정이나

방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학술을 연마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함은 물론 과학의 대중화를 구현하고 국민계몽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목표는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과총의 정신이 그 뿌리를 다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정신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완공시까지 있었던 뒷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만합니다. 전부 공원용지인 1천2백50



▲ 정조영 과총상임부회장

평을 공원용지 해제의 분명한 이유제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등의 험로를 거쳐 1천2백50평을 모두 과총명의로 사들였지요. 저는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지를 마련하는 데 만 3년이 소요되었어요. 토초세가 부과될 어려움에 봉착하자 회관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 민관식건립기성회장, 성낙정과총회장과 함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일이 새삼 되새겨지는데 당시 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받고 또한 3백20여 단체장에게 호소문

을 발송하여 학술단체 및 개인 회사금으로 5억원을 모금하였지요. 회관 현관 대리석 벽에 새겨진 준공기와 도움을 주신 인사들의 이름은 한국과학기술계의 빛나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회관은 우리 과학기술인의 힘, 정부의 기초자금 지원, 기업의 협력 등이 혼연일체가 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20세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2백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빛을 지지 않고 건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남은 예산으로 매우 넓은 본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10월말경 끝내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



▲ 김시중 고려대학교수

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건립은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이루어낸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고급 두뇌 유치 등 계속해야

김시중 : 제 경험에 비추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과충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잠재력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회관 건립도 이러한 과충의 능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과충에 대한 협조, 육성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해외 고급두뇌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일 등 과충이 할 일은 계속 많아져야 합니다. 과충이 그동안 수행하던 일부의 일들을 다른 기관으로 돌린다는 풍문이 있는데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이래서는 안되지요. 전체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민간화·세계화 하는 추세인데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겠으나 어쨌든 과충도 목표를 새로 설정하여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해서 과충의 기틀을 다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임용규 : 과충은 재외한국과학기술자들의 모국방문학술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을 단결시키고 모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와서 봉사할 기회를 마련하였지요. 1974년 제1회 재미과학 모국방문 학술대회는 재외과학기술자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 큰 행사였습니다. 당시 제가 주미대사관 과학관으로 이 행사를 성사시키는데 보탬이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후 이 행사는 과충이 주관하여 계속 발전시켰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재외과학기술자들의 유치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출연기관들도 유치과학기술자의 활용과 학술단체의 기반을 활용하고 연계를 통해서 육성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과충의 역할이 높기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찬모 : 사실 저도 미국에서 귀국해서 느낀 것이 과기처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겸손한 것 같습니다. 브레인 풀 사업만해도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충이 첨단과학기술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학회의 정보화가 하루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인들은 너무 겸손”

또한 재외과학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유대를 위한 정보화도 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재외과학기술자와 국내과학기술자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



▲ 임용규 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위원

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외과학의 모국사업참여는 과충을 창구로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과충을 통로로 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추진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광영 : 과충은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관시킨 여러가지 행사와 사업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회의 및 심포지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매끈하게 처리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구심점으로 학회가 힘을 결집하여 과충창립 당시의 철학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과충도 나름대로의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

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제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홍보 측면에서 학회별로 나오는 관심있는 뉴스를 과총이 취합해서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공신력이 있는 취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월 1회 그 달의 우수논문·우수발명품을 발표하는 뉴스원의 역할을 하면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에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어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과총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표하면 과총의 위상도 높아지고 기자들을 통해 과총의 존립기반구축과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독자적 방송·신문 필요

정조영 : 30주년을 맞이하여 조직재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단, 이사, 상임위원회 위원 등 3백여명이 조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위원회와 과총부설 과학기술홍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건강, 보건, 의약을 비롯하여 생활관련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과총 산하 학회가 중심이 되어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회의 학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과총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40~50개의 학회를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재외한국과학회 협회 활성화 및 지원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재미과학회는 그나마 상근직원이 있으나 다른 과학회는 그러한 인원

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근직원을 두도록 재정지원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자들의 봉사자세 확립, 국가관 정립 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봉사단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특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자문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앞으로 과총이 과학기술홍보의 메카가 되도록 독자적인 방송 및 신문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 박찬모 포항공대교수

을 갖고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과총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나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과총이 자립기틀을 마련하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립위해 능동적 탐바꿈을

김시중 : 과총 산하의 여러 학회가 과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학회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과총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학회 뿐만 아니라 과총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모

든 학회가 과총을 중요시하고 공존·공생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총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큰 기업체의 장들이 다투어 참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총은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과총은 회비를 거두고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선 임원들 스스로 기여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총 임원이 되었다는 것에 긍지를 갖고 솔선해서 기금을 내고 학회 소속 멤버들도 돈을 내야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회장단도 솔선모범을 보이면 단합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협력이 증진되고 아울러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과총을 돕는 일을 하고 뜻을 모으는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합니다. 이제 과총도 크게 탈바꿈해야 살아남는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며 과학기술관련 학회도 변신도 모하도록 각자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모 : 학회와 과총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총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남북과학기술교류를 위한 물꼬를 과총이 앞장서서 터 놓아야 합니다. 우선 조선컴퓨터센터와 협의하는 일 등에서도 과총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조영 : 남북과학기술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국내 과학기술자들 중에는 교류에 적극적이지 아니거나 그다지 간절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지 대중화 시급**

박택규 : 「과학과 기술」지도 과총 창립 2년 후인 1968년에 창간되어 만 28년동안 한호도 거르지 않고 이번호로 통권 329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종합정보지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종합정보지의 특성상 내용구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흥미롭고 쉬운 내용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히는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



▲ 박택규 건국대학교수

생활의 과학화, 과학적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매체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어서 보완,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웅 : 저도 1988년부터 3년간 편집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면에서 발전하였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깃든 잡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가 과총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물의 차원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건의하고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부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전문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더 대중화되어야 하며 생활과학면을 확장해서 초·중·고학생들까지 읽히는 실용성있는 내용과 남북한과학기술용어

도 계속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시중 : 「과학과 기술」지는 앞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일, 일반대중을 위한 잡지로서 자리를 굳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전문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종합정보지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광고수익을 올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정적인 잡지에서 동적인 잡지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독자대상을 30~50대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맞추고 과학기술관련계 정부시책, 기업제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도 알리고 신제품 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흥미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과 기술」지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임용규 : 「과학과 기술」지가 그동안 내용이 알차고 다양해졌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중을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행 부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비롯해서 과학시사저널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정책건의, 비판 그리고 현실성,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을 갖는 잡지가 되면 독자도 많이 확보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체의 광고도 많아질 것입니다.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계 인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 대중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박찬모 :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익한 과학기술정보의 웹 페이지 주소를 찾아 「과학과 기술」지에 올리면 과학기술자나 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고의 과학교육

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실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볼만도 하며 대담칼럼도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와의 대담, 실업인과의 대담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영 : 지난 4년간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관련 필진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필진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조영 : 「과학과 기술」지는 한호도 빠짐없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 잡지의 고



▲ 이광영 과학평론가

민은 독자층을 어디에 맞추냐에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발행부수가 제한되고 그러다보니 광고 수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계의 분야별 동정이나 법령, 국제회의의 관련내용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박택규 : 장시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과총 30년의 찬란하지만 인고에 가득찬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지를 위한 애정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④7